

# ‘청주 산부인과 불’ 산모·신생아 10여명 부상...사망자 없어

### 지하 주차장서 발화...4개 건물로 번져 8명 연기흡입·2명 하혈...35명 전원 조치

29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이 나 다수의 산모와 신생아가 다쳤다.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9분께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산부인과 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10명이 다쳤다. 산모 4명과 신생아 4명이 연기를 마셔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산모 2명은 하혈 증상을 보여 인근 산부인과와 대학병원으로 각각 옮겨졌다.

나머지 산모와 신생아 35명은 다른 산부인

과 5곳으로 나뉘어 전원 조치됐다. 이들에 대한 부상 여부는 조사 중이다.

병원 직원 70여명은 신생아를 먼저 구한 뒤 자력으로 모두 대피했고, 중상자와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자 관할 소방서 인원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발생 1시간 만에 큰 불을 잡았다. 소방차 10대 등 장비 18대와, 소방관 80명 등 인력 94명이 투입됐다.

이날 불은 산부인과 신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됐다. 주차장 외벽이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버트 공법(스티로폼에 시멘트를 바르는 마감 공법)으로 시공돼 불이 빨리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산부인과 신관(10층)과 구관(7층), 본관(5층), 인근 모텔, 차량 10대를 태운 뒤 꺼졌다. 불을 빠르게 끌 수 있는 병원 내 스프링클러는 신관에만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모텔 투숙객 부상자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핑’ 소리가 났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박남진기자



## 광주호 호수생태원 ‘산책다리 난간 부서져’

### 2m 수풀로 추락 50대 여성 경상

28일 오후 2시 35분께 광주 북구 충효동 광주호 호수생태원 산책 다리에서 50대 여성 A씨가 2m 아래 수풀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42분 만에 구조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씨가 기대고 서 있던 다리 난간이 부서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기동취재본부

## “증세 있는데도 버티던 직원 때문에”... 집단 감염·가족도 줄줄이 확진

### 동료 직원들 단체 항의, 결국 병원에 갔는데 양성

코로나19 증상에도 검사 않고 버티며 출근한 직원 때문에 동료 및 가족까지 줄줄이 감염된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원 중 코로나 버티다가 아작났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인 A씨는 “직원 스무 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아직 코로나 한 명도 확진 안돼서 잘들 관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운을 댔다.

A씨는 “그런데 일이 터졌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고 직원 한 명이 그 간 술집 못 간 것 풀 듯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월요일부터 기침하고 아프다고 하더니 자가키트 음성

나왔다고 감기약만 주구장창 먹었다. 그 직원은 혼자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무 중 식은땀을 흘리고 목도 아파하는데 신속항원을 할 필요도 없고 안 할 거라고 하다가 동료 직원들이 단체 항의해 결국 병원에 갔는데 양성이었다”라며 “그제야 코로나일 것 같은데 그냥 버티라고 말하더라. 그 직원은 확진받고 샤워까지 하고 집에 갔다”라고 전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현재 위중증 환자로 분류되어 응급실에 있다고 한다.

이어 “이후 토요일에 나머지 직원들이 줄줄이 확진됐다”라며 “저도 양성이나 격리 1일째다. 저와 아내네는 격리도 되는데 저녁부터 딸이

열이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직원 중 연세 많으신 분도 많다. 직원 가족 중 어르신, 아기도 줄줄이 터지고 있다”라며 “그 직원에게 전화가 와서 자기는 회복되고 있다고 마는데 하루만 범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다.

끝으로 “다들 소중한 가족이 있으니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근무할 시 몸이 이상이 있다면 병원이라도 가자”라며 글을 마쳤다.

해당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직원도 나쁜 것 아니냐”, “저런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너무 이기적이다”, “진작 검사 받으면 될 걸 끝까지 버티다가 여러 사람 힘들게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서선욱기자

## “가족 무시에 격분” 집에 불 지른 30대 징역형

가족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횡간 집에 불을 지른 30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7시 10분께 자신이 홀로 사는 전남 담양군 주택에 인화 물질 30를 뿌린 뒤ライター 불을 질러 주택 80㎡가량을 모두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 “가족이 평소 자신을 무시해 횡간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던 작은 아버지가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방화했다.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도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타인에게 위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지 못함으로써 살인예비 등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러한 전례에도 또 방화 범죄를 저질러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동취재본부

## 오늘부터 동네 병·의원 코로나 대면진료 가능

### 외래진료센터 지정 확대...심평원에 직접 신청

30일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직접 찾아가 코로나19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대면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대면 진료를 하는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279곳이 운영 중이다.

여기에 더해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와 다른 질환까지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한다. 신청 방법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신청 기관은 시간이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진료 가능한 의사·간호 인력



을 확보해 코로나-비(非)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면 된다.

참여 병원은 감염예방관리료와 같은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 지정은 원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심평원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슬비기자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